

# 전주, 트론 타고 '날갯짓'

### 시, 국토부와 '드론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산업·기술·체험·해외전시관 등 운영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국제산업박람회가 드론축구 중주도시 전주에서 열렸다.

지난 5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드론관련 80여 업체가 참가, 200여 부스가 운영됐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드론군집비행 시연이 진행돼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토부 실증사업인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해양쓰레기 분포도를 실시간으로 촬영해 지도화하는 실시간 맵핑 △산림·해안가 등 광역 감시(반경15km)용 하이브리드 드론 △대기측정센서를 통해 실시간 측정 후 경보 알림이

가능한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드론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100분 이상 장시간 비행 및 광범위 순찰이 가능한 장기체공형 수소연료 전지 드론 등이 선보였다.

드론전시회의 경우 △드론체험관 △드론산업관 △드론기술관 △기관특별관 △해외전시관 등으로 구성, 행사 기간내 드론관련 첨단 제품들과 기술들이 전시됐으며 일반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일반인들이 볼거리와 드론 산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전시 부스가 대폭 확보된 것이 특징이다. 개최국인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DJI 기업, 일본 오토박스 등이 드론 관련 첨단 기술과 신제품들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행사장 내 드론축구 상설체험장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배 전국드론축구대회'도 진행됐다.

박람회 마지막날인 7일에는 드론축구 해외 수출 200만불 돌파 축하 행사도 진행돼 드론축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신개념 ICT융합 스포츠임을 재확인시키기도 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국내의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확충의 장을 마련하고 드론산업 선도도시로서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이번 박람회는 전문가부터 시민 여러분까지 누구나 드론산업의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2019 드론산업 국제박람회가 5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특별전시장에서 개막식을 실시한 가운데 여성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과 김승수 전주시장, 정동영 민주당평화당 당대표를 비롯한 시민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장을 관람하고 있다.

## 드론축구 세계화·공동협력체계 구축 '맞손'

### 전주시-중국 심천드론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첨단 드론기술과 탄소산업, ICT기술을 융합해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의 저변이 중국으로 넓어지게 됐다.

시는 지난 5일 전주시장에서 김승수 시장과 양금재 중국심천드론산업 협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인 드론축구 세계화와 국제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드론 축구 국제화를 위한 교류 및 발전적 상호협력 △중국드론축구협회 설립을 통한 드론축구 저변 확대 △중국내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한 중국내 대회 개최 △세계 나라별 드론축구협회 설립 및 세계연맹체 구성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협약을 체결한 중국 심천드론산업협회는 현재 중국 전역

의 대학교수와 영향력 있는 전문용·상업용·소비형 드론전문업체 200여 곳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중국 최대의 드론협회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드론축구가 국제대회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며, "오늘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5년 드론축구월드컵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지난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제31대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취임식이 실시된 가운데 조용식 신임 청장이 동료 경찰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빈틈없는 민생치안 확보'

### 조용식 신임 전북경찰청장 취임식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전 10시 전북청 대강당에서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대 조용식 청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조 청장청장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성'을 다하는 전북경찰"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전북을 만들고, 지역사회가 의지하고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전북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자"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기대와 요구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민생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며 "도민과의 협력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인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발생 대응을 전개하겠다"며 "여성 대상 범죄를 근절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력범죄와 신종 마약범죄, 전화금융사기 등 경제 침해 범죄는 '엄정한 법의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북청장은 1987년 경찰에 입문해 전북청 경무과장, 김제서장,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서울청 경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강석훈 기자

### 전주한옥마을을 향교길

### 3개소에 '아트쉘터' 설치

전주한옥마을을 향교길 3개소에 여행객들이 무더위와 햇볕을 피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아트쉘터가 설치됐다.

전주시는 주민이 제공한 전통창호에 청년목수와 지역 미술가의 손길을 입혀 전주한옥마을 정체성에 맞는 예스러운면서도 고공스러운 아트쉘터를 제작·설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특히, 쉘터는 청년 목수와 지역 미술가들이 한식 전통담장과 어울리는 능소화 그림을 손수 그려 넣고 손 글씨로 이정표를 써 넣는 등 작품성을 담았다.

전주시에 따르면, 아트쉘터는 전주한옥마을의 전통적 이미지를 살리고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통창호를 활용해 햇볕을 피해 쉬며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송효철 기자

### 전국 남녀 궁도대회 성료

전주시궁도협회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주다공원 천양장에서 '전주천양정 제58회 및 제21회 전주시장기 전국 남·녀궁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궁사들이 모여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눠 전통 활쏘기 실력을 뽐냈다.

활을 이용해 목표물을 얼마나 정확히 맞히는지를 겨루는 스포츠인 궁도는 오랜 역사 속에서 선조들의 효연지기를 기리고 심신을 단련했던 전통무예다.

오늘날에도 양궁과 함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로 최근에는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자 신체와 정신 수양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레저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내 배수로서 백골 시신 발견

### 경찰, 수사 착수... 오랜 기간 부패, 상태는 대체로 온전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 배수관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전주 배수관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아파트 배수관에서 청소하던 관리인이 백골 시신 1구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오랜 기간 부패가 진행됐으나 대체로 온전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원 발견된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며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 교통안전공-전북경찰청, 여름철 음주운전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북지방경찰청은 합동으로 음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 야간을 불문한 대대적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른 바 제2운차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정지수치(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취소수치(0.08% 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지수치라도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를 받게되는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아울러, 공단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도 강력하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송효철 기자

###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 덕진선관위, 생활선거 지원

다양한 생활선거 지원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 PC나 휴대폰으로 접속해 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투표를 치를 수 있다.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대준)는 지난 5일 K-voting을 통해 전주 전라초등학교 전라국회 임원선거에 PC를 이용한 온라인투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K-voting을 통해 이용가능한 선거로는 각종 단체 대표자선거, 공동주택 동대표선거 및 찬반투표, 학생회 임원선거 등 다양하다.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방법은 (<http://kvotin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